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안돼요' 서울시와 강북구, 쓰레기함께줄이기시민운동본부 등 관계자들이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 한장으로 수도권 96곳 관광해요”

서울시, 외국인 전용 관광패스 '디스커버 서울패스' 한정판 출시



디스커버 서울패스 수도권 특별판. /서울시

서울부터 경기·인천까지 96곳의 관광지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관광패스 '디스커버 서울패스 수도권 특별판'이 출시된다. 서울시는 '디스커버 서울패스'로 이용 가능한 시내 관광지 66곳에 광명동굴, 용인 에버랜드,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등 경기·인천 주요 관광지를 추가한 한정판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디스커버 서울패스는 카드 한 장으로 시내 36개 인기 관광지 무료입장, 30개 공연, 미용·한류문화 체험 관광지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관광패스다. 대중교통 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충전 후 교통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특별판 출시는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제안하고 경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가 협력해 이뤄졌다. /김현정 기자

수협, 舊 노량진시장 단전·단수 조치

“불법영업 중단, 신시장 입주를”

산물 유통, 식품위생 관리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인해 시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협 관계자는 “수협은 지난 3년간 불법 시장 상인들을 위해 신시장 자리를 비워둬으로써 연간 100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달 9일까지 입주 기회를 주는 만큼 불법 영업을 중단하고 신시장으로 입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공동위원장은 “서울시와 한전에 민원을 넣었고, 경찰에도 형사고발했다”며 “법원에 고지분 금지 신청을 넣고 추후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전에 단전·단수 안내를 했을 때 전기세량 수도세를 낼 테니 요금 고지서를 달라고 했다. 수협은 '묵묵부답'이었다”며 “사전에 고지했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수협은 5일 오전 9시 구(舊) 노량진시장 전역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협은 지난달 30일 공고문과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지역 상인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사전 고지했으며, 고객과 상인 영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전에 이번 조치를 실시했다. 수협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승소 판결에 따라 지난달 23일까지 4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상인과 노점상연합회 등의 집단 폭력행위로 무산됐다”며 “더 이상 명도집행으로는 시장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단전·단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수협은 또 구 노량진시장이 48년 된 노후 건물로서 낙석과 추락사고, 주차장 붕괴위험, 정전사고 등 시설물 안전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오늘 청년 일자리 대책 토론회

기후변화·에너지 전환 관련 논의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 시대를 열 어갈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의 장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6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에너지전환 시대, 청년 일자리 도전과 해결과제'를 주제로 2018 서울 에너지포럼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와 에너지기업기체,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시대의 청년 삶과 일자리 변화, 대비책 등을 논의한다. /김현정 기자

주제발표에서는 에너지기업을 운영하는 젊은 기업가들이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관리를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가 '에너지전환 시대, 일자리 창출방안'을 주제로 기조연설한다. /김현정 기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

서울시, 최대 2억원 저리융자 지원기간 6년→8년으로 늘려 자녀 1명당 2년 최대 4년 연장



박원순 서울시장.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5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신청받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시가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저리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 이자 부담을 다른 전세자금대출의 절반 수준(1.7%포인트)으로 낮췄다. 시는 전월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늘렸다. 기본지원은 2년 이내로 기한 연장 때마다 최초대출금의 10%를 상환하면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 수가 증가하면 자녀 1명당 추가로 2년(최대 4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새로 임차계약을 맺을 때뿐 아니라 기존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청(서울시)과 대출심사(국민은행)

시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심사 때 최종 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 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가 지원하는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에 명시된 혼인신고

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 검토 후에는 추천서가 발급된다. 신청자가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지급된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다. 지원되는 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4000만원 이하는 1.0%포인트, 4000~8000만원 이하는 0.7%포인트가 지원된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예비신혼부부는 0.2%포인트를 추가 지원로 받을 수 있어 최대 연 1.2%포인트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게시되는 신청자 모집 공고나 Q&A를 참조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거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경기도, 장항·경춘선 환승손실보전금 소송 승소

법원, 한국철도공사 측 상고 기각 재정부담금 20억, 매년 3억 해소

한국철도공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해온 '장항선·경춘선 전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3년간의 논쟁을 끝내고 최종적으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은 '장항선·경춘선 연장 구간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상고심'과 관련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한국철도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08년 연장 개통된 장항선 충남구간(봉명~신창역), 경춘선 강원구간(굴봉산~춘천역)의 이용객이 경기버스로 환승할 때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을 경기도가 부

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심 판결 당시 재판부는 해당 연장노선이 합의문 작성 당시 존재하지 않았고, 연장노선 적용 여부도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강원·충남은 수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확대해석이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경기버스 탑승자의 연장 노선 하차 시 경기도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것을 '묵시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며, 연장노선에 대한 통합환승할인제도 적용과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원심의 주장내용을 재 반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연장구간 상행 이용객이 천안역 이전 역에서 승차했는지라도, 천안역부터는 환승할인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학교 공공급식 한마당 축제 9일 광파르

서울시는 9일 오전 10시 서울광장에서 '2018 서울시 학교·공공급식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축제는 친환경급식 사업의 성과와 의의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학생, 학부모, 영양(교)사, 생산자, 급식 유통 관계자 등 약 1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식문화 혁신 주간에 맞아 '지구를 살리는 밥상 공동체, 농부의 손에서 아이들의 식탁으로'를 주제로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친환경학교 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1년에는 초·중·고교에서 친환경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행사장에 마련된 쿠킹버스에서



'2018 서울시 학교·공공급식 한마당' 축제 행사 모습. /서울시

는 서울시 친환경급식 홍보관과 전시장도 친환경 공공급식 홍보관과 전시장도

서울시, 친환경급식 사업 공유 샘김세프의 쿠킹클래스 등 진행 준비되어 있다. 또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채소의 단면에 물감을 묻혀 종이에 찍는 채소도장 찍기, 논 생태 지도 그리기, 다육식물 화분 만들기, 식생활을 주제로 한 인형극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서울시 친환경급식과로 문의하면 된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친환경급식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도농 상생의 선순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학부모, 영양(교)사, 생산자 등 모든 관계자들이 친환경급식을 만들어 가는 주체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